

##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해양 방출 개시에 대해서

2023년 8월 22일  
도쿄전력홀딩스 주식회사

당사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지금도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회 각지의 여러분에게 크나큰 심려와 부담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관계 각료 등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이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의 개시 시기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당사에게 방출 개시를 위한 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 작업을 안전·착실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는 실시 주체로서 이번 정부의 판단과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시 계획에 따라 향후 최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방출 개시를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방출 실시에 있어서 당분간 신중하게 소량 방출부터 시작하여 2단계로 나누어 방출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ALPS 처리수 첫 회 방출의 제1단계로써 ALPS 처리수가 예상대로 희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극소량의 ALPS 처리수를 해수로 희석하여 방수 수갱(상류 수조)에 저장합니다. 그 후 저장한 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후, 8월 24일 이후 제2단계로써 연속으로 해양 방출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폐로의 일환인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대처입니다. 당사는 이 기간동안 ‘유연비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는 강한 각오를 가지고 ‘설비 운용의 안전·품질 확보’, ‘신속한 모니터링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 발신’, ‘IAEA 리뷰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 ‘유연비어 피해 대책’ 및 ‘손해 발생시의 적절한 배상’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안심하고 생활하며 생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폐로의 현황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대처를 성심껏 설명하고 여러분의 우려와 관심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며, 요청에 대해 착실하게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나하나 거듭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처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특히 해양 배출의 시동 단계에서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경영진이 현장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여 회사 전체의 횡단적인 체제,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과제 해결에 임하기 위한 체제※를 조속히 마련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처리수 등의 대책을 안전 최우선으로 착실하게 추진하며 지역의 부흥을 위해 ‘후쿠시마에 대한 책임’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 ※체제 강화

- 경영 간부의 현장 파악 강화 (부사장의 현장 주재·감독, 사장의 현장 확인)
- 발전소·유엔비어 피해 대응·배상 등의 관계 부서를 횡단적으로 통괄하는 사장 직할 프로젝트팀 설립
-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에 특화하여 정보 발신·유엔비어 피해 대책·배상 대응에 관해 일원적으로 대응하는 전임 체제를 구축하여 담당 임원을 배치

#### <별지>

[별지 1 :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